

FANNIE MAE, 다가구 세입자를 위한 조치 추가



Fannie Mae는 Fannie Mae가 재정을 지원하는 다가구 임대 주택의 거주자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를 위한 것이라고 Fannie Mae는 웹 사이트에서 발표했습니다.

FHFA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의 발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Fannie Mae는 신규, 연장 또는 수정된 관용 계약을 체결한 Fannie Mae가 지원하는 모기지가 있는 다가구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기간 동안 세입자 보호에 대해 서면으로 거주 세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가구 부동산 소유자의 인내 및 상환 기간.



Fannie Mae가 지원하는 모기지를 보유한 다가구 부동산 소유자는 COVID-19 비상 사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계속 경험할 경우 신규 또는 자격이 있는 경우 연장된 인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관용하는 동안 부동산 소유자는 임대료 미납을 위해서만 주거용 세입자를 퇴거하지 않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6월 29일 FHFA는 상환 기간 동안 적용되는 추가 거주 세입자 보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보호에는 주거 세입자에게 퇴거를 최소 30일 전에 통지하고, 거주 세입자에게 임대료 미납에 대한 연체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주거 세입자가 일시불이 아닌 시간에 따라 임대료를 유연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주거용 세입자 알림 외에도 Fannie Mae는 회사의 온라인 다가구 부동산 대출 조회 도구인 Renters Resource Finder를 업데이트하여 세입자가 거주하는 다가구 자산에 Fannie Mae가 지원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당.

또한 Fannie Mae는 세입자가 회사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다가구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지원 옵션을 찾는 방법을 포함하여 세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